

“오늘은 번뇌 씻고 새로 태어난 날”

동국대 산하 초·중·고 학생 1500여명 합동 수계

현재 스님(동국대 이사장)이 입장하자마자 유명 연예인이 나타난 것처럼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반야심경을 외며 수계식 예행 연습을 할 때만 해도 다소간의 긴장감이 엿보였지만 아예, 콘서트장(?)으로 돌변했다.

11월 24일 오전 동국대 중강당.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중·고등학교 합동 수계 대법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강당을 가득 메운 750여 학생들은 이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이 종소리로 번뇌를 씻고 수계를 받아 새로 태어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김형중 교법사(동대부교)의 인사말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진다. 이제 불제자로 다시 태어나야 할 시간이다. 수계를 받기 전 만난 김양현 군(홍제중 3)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풀렸다. 수계를 받겠다는 생각에 새벽 6시 밀양에서 올라온 김군은 “초등학생 때 캠프에서 수계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느끼고 지금

느낌은 또 다르다”며 “떨리고 설레고 불교에 지금에서야 정식으로 입문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인제사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의 선장에 따라 삼보를 청하고 계사를 청했다. 전제사 현재 스님은 “몸으로 잘못을 지울 수 있기에 부처님께서는 미리 계를 설해 지키게 했다. 여러분은 내 몸을 태우며 참회하는 연비를 하며 절실하게 참회하라”고 법문했다.

드디어 연비 시간. 참회진언을 외우며 연비를 기다리지만 학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동국대학교 학인스님들과 교법사들이 향을 들고 연비를 시작했다. 참회진언을 외는 소리와 비명으로 중강당은 시끌벅적하다.

연비를 마치고 만난 손민정 양(은석초6)은 개신교 신자였다. 수계받은 것에 대한 거부감도, 연비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손 양은 “수계받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 다 반성하겠다”고 진지함을 보였다. 전연선 양(명성



은석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스님으로부터 연비를 받으며 신기해하고 있다. 옆에서 한 친구가 핸드폰으로 연비받는 친구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여고1)과 임지영 양(명성여고1)도 “수계를 받아 내가 깨끗해진 느낌”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수계의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수계법회에는 지방에 있는 소속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올라와 수계에의 열의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전북 김제에서 온 성주용 군(금산고 1)은 “집에서 불교를 믿지만 불교학

생회 활동을 해본 적도 없고 불교를 너무 모른다. 불교에 대한 경험도 쌓고 수계에 받기 위해 참석했다”고 수계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날 동대부교 명성여고(1부)와 동대부중 명성여중 은석초등학교 홍제중 금산중·고(2부) 소속 학생 1500여명이 참가한 수계식은 발원으로 회향했다.

김지연 기자

지난해 입적 스님 추모사업 줄이어

서울 월하 덕암 청화 덕명 정대 스님... 법어집 출간·부도탑 건립 등

한국불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사부대중을 이끌다 지난해 연이어 입적한 여섯분 스님들의 1주기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추진된다. 추모사업은 법어집 발간과 부도탑 제막 등 생전 스님들의 가르침대로 조출하면서 유지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천진불교 청송암에서 수행납자를 지도했던 고불총림 방장 서울 스님 1주기인 12월 30일, 백양사는 추모법회와 함께 유품 등을 전시하는 성보 박물관을 개관한다. 이날 <서울 대종사 추모법어집>도 발간한다.

통도사는 영축총림 방장이었던

월하 스님을 추모하는 사업으로 12월 20일 1주기 법회와 함께 스님의 사리 50여과를 봉안한 부도탑을 제막한다. 4개의 테이프를 구성된 <월하 대종사 육성 법문집>도 펴낸다.

청정한 수행으로 대중교화에 전력했던 전 태고종 종정 덕암 스님 1주기 추모법회는 12월 10일 서울 발문사에서 열린다. <덕암 대종사 법어집>과 <꽃은 풀 속에서 웃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하네> 등 스님의 법문을 모은 2권의 법어집이 출간돼 스님의 면모를 그림게 한다.

1일식과 장좌좌와로 수행자들의 귀감이 됐던 청화 스님의 1주기 법

회는 11월 21일 열렸다. 성륜사 신도회와 문도회는 1주기를 맞아 <성자의 삶>과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를 출간했으며, 2006년에는 청화 스님 부도탑을 세울 계획이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지낸 덕명 스님의 추모법회는 12월 19일 부산 안적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정대 스님 문도회는 12월 6일 1주기를 맞아 스님의 흉상 제막을 준비하고 있다. 스님이 설립한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학살단체와 학생들에게 1억 3900만원을 전달했다.

유철주 기자

포항시장 퇴진촉구 2차 성명

종교평화대책위, 12월15일

법시도민대회 개최기로

포항시안합회 종교평화 대책위원회(이하 종편위)는 11월 25일 포항불교사안합회 고문 법달 스님, 회장 경천 스님, 불국사 부주지 관우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운흥사에서 종편위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정장식 포항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 시장이 16일 ‘포항관광 홀리클럽’을 탈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른 것.

이날 종편위는 성명서를 통해 “정

시장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12월 15일 ‘사회와 종교 화합 실현을 위한 법시도민대회’를 개최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종편위는 당초 11월 30일 정 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불교인과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종교화합을 실현하고 종교평화 사례에 대한 대응 및 해결을 모색하는 차원의 대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집회 일정을 변경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소속 사찰과 신학단체, 지방 분관전국연대, 포항 KYC 등 종교·시민단체 100여 개가 참여했다.

배지선 기자

해인사 장경각 개방 단계적 축소하기로

법보총장 해인사가 팔만대장경의 보호를 위해 장경각 개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해인총림은 11월 25일 임회를 열고,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장경각 개방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해인사는 먼저 2006년 3월~2006년 12월 개방시간을 오전 오후 3시간씩으로 축소하고, 2007년부터는 음력 3월 초파일~4월 초파일, 여름휴가 15일, 9월 불사 전후 한달, 설날 이후 15일 등 1년에 3개월만 장경각을 개방한다. 2010년부터는 해인사는 10년마다 1년씩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기 위해 장경각의 문을 닫는다. 배지선 기자

광덕산 난개발 우려 환경연대 입장표명

천안 광덕산 광덕사와 안양암 밑으로 대지 6천여 평 규모의 숙박시설 및 식당 등의 상가조성계획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가 11월 22일 ‘상업용 건축물 난개발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날 “국립수목원의 조사 결과 총 805종의 식물이 서식하며 이중 39종이 특산물일 정도로 생태 보존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 면적이 6천 평이지만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사찰 수행환경과 사유재산 침해의 측면까지 있다”면서 건축주측의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도롱뇽을 살려주세요” 고속철 전성산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도롱뇽 소송에 대한 부안교법의 최종 판결일인 11월 29일을 앞두고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은 11월 2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학로 마루니에 공원까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기 위한 ‘도롱뇽의 함성-생명의 퍼레이드’를 벌였다. 강유신 기자

“템플스테이 다시 체험하고 싶다” 60% 새벽산책·참선·다도 만족도 높아

템플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또 개선해야 할 점은? 여기에 대한 답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고)이 11월 24~25일 김포 효원 연수문화센터에서 개최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2차 실무교육’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2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726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별 만족도의 경우 불무도, 새벽산책 등 사찰 고유프로그램 만족도(81.8% : 매

우 만족 52.3%, 만족 28.7%)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참선 프로그램(75.7%) 다도 및 스님과의 대화(75.3%) 예불(74.4%) 순이었다. 따라서 사찰 고유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개발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참가자의 예불 만족도가 전체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대학이나 기업에서 참가한 사람들의 예불 만족도는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집단의 목적에 의해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예불참

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참가유형별로 보면 개인자(46.3%)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24.5%) 일반단체(13.8%) 불교단체(12.7%) 대학(2.7%) 순이었다.

청결성의 경우, 숙소나 수련복, 식당은 깨끗했지만 이에 비해 샤워 시설이나 화장실은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대부분의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위해 시설을 신축했기 때문에 숙소 및 참가자들 동선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샤워시설, 화장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친절성 만족도(90.4%)는 매우 높은 반면, 진행자의 전문성 만족도(78.1%)가 다소 낮게 평가됐다. 또 대학생들이 템플스테이 비용을 다소 높게 평가해 대학생 참가비 책정에 대한 논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모든 사찰에서 60% 이상이 다시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지연 기자

한국불교학연구기금 창립·장학금 수여

불교학자들의 원활한 연구를 돕기 위한 한국불교학연구기금(상임대표 법상)이 11월 23일 보광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불교소장학자 4명에게 제1회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박사학위논문

부분에 선정된 ‘고려시대 승계·승적 연구’의 박윤진(고려대 사학과), ‘백제불교 사상사’의 조경철(한국정신문화연구원)씨 등은 각각 7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불교원전 번역부문에 선정된 ‘<삼대승론>, <증상해학본> 및 세친석과 무성석 연구’의 김성철(동국대 인도철학과)씨는 1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은비 기자

“부실시공 책임 묻겠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학교법인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실사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1월 23일 병원건물 지하 2층의 누수문제와 냉방설비 부실 등 600여건에 달하는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사인 ‘LG건설’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실사위원장 영담 스님은 “시공사의 하자들뿐만 아니라 준공과정에서 학교 건설본부측과 시공사의 행정적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시공사인 LG건설은 지난 4월 동국대를 상대로 공사대금 230억원에 대한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불교태고종 제14세·16세 종정

덕암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대법회

한국불교태고종 제14와 16세 종정을 역임하셨던 덕암 대종사 1주기 추모대법회에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큰스님의 행원력은 태고종단과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었고 자애로운 신덕(信德)과 혜지(慧智)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 하는 보기 드문 대선지식이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큰 스승이셨습니다.

이에 태고종도와 불자 여러분은 오는 12월 10일 ‘덕암대종사 1주기 추모대법회’에 참석하시어 덕암스님의 위법망구의 정신과 수행정진을 당부하신 훈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48(2004)년 12월 10일 (음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불이성 법륜사

문의 : (02)732-3920, 732-2710

불이성 법륜사 주지 보경 합장
덕암화상 문도회 회장 예준 합장